

# 민선 8기 취임 2주년

## 최영일 남원시장 “성과 창출 더욱 집중할 것”

남원시는 1일 시청 회의실에서 민선 8기 시정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선8기 전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시정운영 방향 등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영일 시장은 “지난 2년 동안 한마음 한뜻으로 남원발전의 열망과 신뢰를 보여 준 시민들과 그 여정에 함께 해 준 공직자들, 또 남원시정을 빛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전반기에 남원발전의 초석을 탄탄히 세웠던 만큼 그

토대 위에 후반기에는 본격적인 성과 창출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3년 차부터는 남원 더욱 협치하면서 일하는 성과 중심의 조직을 완성하겠다”며, “구체적으로는 전북대 남원글로벌캠퍼스 국유재산과 부지교환 및 2026년 운영목표 설립을 위한 법적 검토, 강소기업과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등 남원의 경제 부흥 견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시장은 “남원의 미래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드론 레저·스포츠·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KTX 남원역 세권 투자 선도지구 지정 및 곤충산업 고도화를 추진하는 등 보다 과감한 실행과 끊임없는 도전으로 작지만 강한 도시, 성장잠재력 높은 도시 남원의 더 큰 미래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심민 임실군수 “현재가 곧 미래, 모든 역량 집중”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미국 의 경영학자, 피터드러커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그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군의 당면한 현안을 풀어나고,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데 우리 모두가 함께 일해봅시다.”

1일 민선 8기 취임 2주년, 무소속 3선을 이룬 심민 군수의 재임 10년차를 맞이한 이날 심 군수의 일성은 “현재가 곧 미래”, 즉 현재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밝은 미래를 열어주는 ‘답’이라는 것이었다.

이날 군수 취임 10주년을 맞은 심 군수는 특별한 기념식을 생각하고, 청사 문화강좌실에서 직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원초회를 열었다.

심 군수는 “항상 곁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해 준, 직원분들께 고맙다”며 “저는 군수로서 재임한 10년을 포함한 38년간의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남은 2년 오로지 시민만을 위한 진심을 담아 새로운 도약을 위해 더욱 힘차게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 사상 첫 3선 임실군수라는 강력한 추진력을 기반으로, 중단없는 임실 발전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당면 현안을 설명하며, 천만관광 임실을 위한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한국 관광의 날’ 임실치즈페스티벌을 비롯한 육점호와 오수 세계 명진데미랜드, 선수산 등 명품 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차질없는 기반시설 사업 추진이다.

이와 함께 KTX 임실역 정착과 치즈 테마파크 연계 역사관 개발, 구 제일극장 부지에 정주환경 복합센터 신축, 임실읍, 오수면, 관촌면 공공임대 아파트 건립 등에 관한 각종 행정절차의 신속한 이행과 속도감있는 추진이다. 또한 국가예산 확보와 공모사업 적극 대응, 중대형 신규사업 발굴, 준복



도 소관 군특 및 도비사업 대응 등을 주문하는 한편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2024임실N치즈축제 성공개최, 여름철 폭우와 장마 등 재난재해 안전대책 마련 등을 당부했다.

이날 청원초회는 심 군수와 직원들이 함께 민선8기 전반기 군정 성과 및 하반기 비전을 공유하며,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천만관광 임실시대 실현에 모두가 힘을 모으자는 의지를 거듭 재확인한 자리였다.

한편 청원초회에서는 국무총리 및 군정 모범공무원을 비롯한 군정발전 유공 및 모범이장, 새마을부녀회장, 생활개선회 우수회원 등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아낌 없는 축하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임실=진홍영 기자

## 최영일 순창군수 “힐링 관광지 자리매김 최선”

최영일 순창군수가 1일 순창군청에서 공무원들과 민선 8기 2주년 기념행사를 약속으로 개최하며 앞으로 남은 2년의 군정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최영일 군수는 직원들의 축하를 받으며 청사로 출근해 간부회의와 직원 청원초회를 갖고 소탈하게 민선 8기 2주년을 지켰다.

최 군수는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직원들과 청원초회를 갖고 지난 2년의 성과와 앞으로 순창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공무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 군수는 “지난 2년은 순창형 보편적 복지체계의 체계를 갖추기 위해 중

앙정부와 국회 등을 오가며 열심히 된 결과, 아동행복수당 지급, 농업기본소득 확대 시행, 대학생 생활지원금, 청년종자농장 지원사업 등의 성과를 보인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주 환경을 개선해 인구 유입에 노력하면서 올해 초 인구 증가라는 놀라운 실적을 기록했다”면서 “농촌 유학생 유치, 전원마을 500호 조성, 농촌 유학생 관련 가족 체류형 거주시설 조성 등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최 군수는 “앞으로 남은 2년은 친환경 고부가가치 사업인 관광사업에도 노력할 계획”이라며, “강진산 온



자실 치유관광지와 서부권 관광레저 시설 사업 등을 통해 순창이 힐링 관광지로 도내를 대표하는 관광지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영일 군수는 이날 지역 언론인, 제대 후반기의회 의원들과도 각각 자리를 함께하며 군정 2주년 성과와 계획 등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순창=이영원 기자

# “보편적 복지 체계 확고히 하겠다”

## 최영일 순창군수, 언론인 간담회 갖고 미래 비전 제시

최영일 순창군수가 1일 군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민선 8기 2주년 언론인 간담회를 갖고 2년동안의 소회와 순창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최영일 순창군수는 “지난 2년이라는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간 거 같다”면서 “보편적 복지의 체계를 갖추기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오가며 열심히 활동한 결과 아쉬움은 남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거 같다”라고 말했다.

군은 민선 8기 2년간 아동행복수당 지급과 노인 인자리 2,933개 돌과, 노인 이머빙비 지급, 농민기본소득 확대 등 보편적 복지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최영일 군수는 “보편적 복지와 함께 돈 버는 농업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라오스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와 농촌 일손부족 문제 해결에 노력했고 지난 5월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준

공, 지난해 농민기본소득으로 120만원 지급 등 돈 버는 농업의 토대를 갖추는데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이 인구 소멸로 시름하던 올해 초에 40명의 인구가 증가하는 기쁜 소식도 들렸다”며 “인구 유치를 위해 전원마을 500호 조성, 공공임대주택 건립, 농촌 유학 거주시설 조성사업 등도 이 속도 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선 8기 처음 시작할 당시 순창군민을 위해 계획했던 데로 보편적 복지정책의 체계를 완성해 가는 시기가 생각하고 군민들과의 약속을 실현 시키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인과 대화를 이어간 최 군수는 “순창군의 5대 군정 목표 중 첫 번째는 군민화합이었다”면서 “군민과 함께 순창군을 만들어 가는 군수가 될 수 있도록 지역 언론인들께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순창=이영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민의 장 후보 31일까지 신청접수**

남원시는 향도의 명예를 높이 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제30회 남원시민의 장 후보자 추천서를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남원시민의 장은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으로 남원시의 명예를 높이고 시민 모두의 귀감이 되는 시민, 출향인사,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선발분야는 문화장, 체육장, 효행장, 봉사장, 산업근로장, 애향장 총 6개 분야로, 접수는 유관 기관장, 학교장, 사회단체장, 시정 실무소·읍면동장 등의 추천을 통해 이루어지고, 각 분야 수상자는 접수된 후보자들에 대한 현지조사와 심사위원회 거쳐 공정하게 선발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시, 민선 8기 2주년 기념행사 개최

남원시가 민선 8기 출범 2주년을 맞아 시민과 함께 걸은 2년을 되돌아보고, 향후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1일 시청 강당에서 민선 8기 취임 2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기념행사는 기관사회단체장, 주민, 직원, 표창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7월 시정 소통혁신의 날 행사로 병행 개최됐으며, 유공자 표창, 민선 8기 2주년 주요성과 영상 시청 및 감사패 전달, 민선 8기 시정 2주년 기념사, 축하공연, 폐회 순으로 진행했다.

최영일 시장은 “지방소멸 위기 같은 녹록하지 않은 대내·외 여건 속에서 더 지난 2년간 눈부신 성장성과를 창출하는 등 그야말로 혁신에 혁신을 거듭하는 남원시정 대변혁을 함께 만들어냈다”며, “새로운 도약을 위해 대장정



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고 밝혔다.

또한, “새로운 2년도 오늘보다 더 나은 남원의 미래를 한 마음 한뜻으로 만들어가자”며, “시민들께서 꾸는 꿈이 바로 시정이 꾸는 꿈이고, 남원시가 만들어갈 새 미래이며, 희망으로, 시민행복도시 실현을 위해, 앞으로 더 시민 여러분과 협치해가며 더 과감히 도전, 끊임없이 실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시, ‘요천 물놀이시설’ 오늘 개장

남원시는 여름 무더위에 지친 시민과 관광객에게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 요천 물놀이시설을 2일부터 개장했다.

물놀이시설은 요천 고수부지에 설치되어 있으며, 1,170㎡의 면적으로 유수 풀장, 물놀이장, 바다분수를 포함한 9종의 물놀이 기구를 갖추고 있어 가족, 연인, 어린이 등 남녀노소 누구든지 남원을 즐기고 추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돼 있다. 또한 그늘막, 샤워장 및 탈의실 설치, 안전요원 채용 등을 완료하였으며, 7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무료로 운영한다.

매주 월요일과 우천 시에는 휴장하고, 운영시간은 10:30, 13:30, 16:00에 각 90분간 운영하고, 운영 중간 쉬는 시간에는 수질관리, 환경정비 등을 추진, 물놀이시설에 이용되는 용수는 매일 교체하고, 15일마다 1회씩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20여 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물놀이시설 내 음식을 반입을 금지하는 등 안전하고 깨끗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

**전북의 역사·문화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괄난 항의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제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기만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누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 때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환중 돋우고 있어 한국 누경의 대표가 되는 문화적 중 하나도 손꼽히고 있다.

(글: 문화재청 제공)